

오피니언

금남로에서

정재현



동력으로 작용할지는 두고 불일이다. 민주당이 텃밭으로 여기는 광주·전남 민심도 예전과는 사뭇 다른 기류다. 아니 다른 정도가 아니라 확 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의 미래는 없기 때문이다. 과거처럼 특정 인물과 정당의 불모가 패선 지긋지긋한 '낙후'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는 얘기다.

붕괴되고 미래성장동력인 주요 국책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어도 지역 국회의원들은 먼 산 보듯 하고 있다. 그렇다고 절망과 분노에 찬 지역 민심을 다독이지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대안도 주지 못하고 있다.

‘분당 반란’ 타산지석 삼아야

물론 야당으로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지역 정치인들의 어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힘을 합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계파 정처에 함몰돼 서로 핏대와 핏대를 올리는 모습은 이해되지 않는다. 지역민심을 알보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역 정치의 쇠신을 정치인 손에 맡겨선 하대명년(何待明年)이다. 지역 민심부터 변화가 가능하다. 민주당이면 허수아비를 내놓아도 당선시켜주는 구태를 깨지 못하면 지역정치의 후진성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이 천당 같다는 분당이 지역으로 변한 '민심의 반란'이 광주·전남에서도 일어나야 한다. 그래야 무능한 인물을 내보내지 않는다. 정치인들이 광주·전남을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과거의 유물인 '한풀이' '물지 마' 정치의 고리를 과감히 끊자. 내년 총선에서 지역민의 손으로 '선거 혁명'을 이뤄내 인적 쇠신을 단행해야 한다. 그래야 지역의 살 길이 보인다.

〈논설실장〉

시설

“차라리 현 정부 손 떼라”가 지역 民心이다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호남고속철 광주~목포구간 노선 선정과 관련해 “차라리 현 정부는 손을 떼라”고 공개 장소에서 직격탄을 날렸다. 광주~목포구간을 기존 노선으로 활용하려는 정부 방침에 초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박 지사의 이 같은 ‘작심 발언’은 그동안 MB 정권의 전남 배척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현 정부는 호남고속철 2단계 구간 건설을 비롯해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J프로젝트, 무안공항 활성화, 여수엑스포 등 각종 전남지역 핵심 현안에 소극적이거나 아예 외면하고 있다. J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판촉을 곁고 있는 실정이다.

박 지사의 분노를 촉발한 호남고속철 2단계 구간 문제만 해도 그렇다. 정부는 이 구간을 새로운 노선으로 하지 않고 기존노선을 개량할 계획이다. 이렇게 될 경우 고속철의 평균 시속은 188km에 그친다. 무늬만 고속철인 셈이다.

기존 노선 활용 이유로 예산절약과 경제성을 들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고속철 일부 구간도 기존 노선을 활용해 돈을 절감했어야 하지 않은가. 또한 현 재 정부고속철 운영이 흑자를 내고 있는지 묻고 싶다. 고속철은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국가 기간산업이다. 경제성은 그 뒤의 문제다.

정부는 무려 36년이 걸린 호남선 복선화 사업의 전철을 그대로 되풀이하겠다는 의도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현정부는 손을 떼라는 것이 지역민심이다. 부글부글 끓는 민심은 지역차별과 소외를 더 이상 방관만 하지 않을 것이다.

4·27 재보선에서 민심은 정부와 정치권에 통합과 소통을 명령했다. 광주·전남을 소외하고 국가통합을 이룰 수 없다. 호남 민의를 외면하면서 국민과의 소통은 불가능하다. 민심을 거역하는 정부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진리다.

여수박람회 D-1년, 성공 개최 만전 기해야

2012 여수세계박람회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5월12일부터 8월12일까지 93일간 여수 신항 일대에 개최되는 세계박람회는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세계 3대 축제에 속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다.

여수박람회는 생생 유발효과가 전국적으로 12조2천328억 원에 달하고, 고용은 7만8천833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박람회 기간에는 외국인 55만명을 포함해 1천만명 이상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박람회 준비는 전시관과 각종 부대시설 등 각 부문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공정률 52%를 보이는 전시관 등은 내년 1월 완공된 뒤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적인 막을 올린다. 조직류는 100개국, 5개 국제기구 참가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벌써 95개국, 8개 국제기구가 참가 신청을 한 상태다.

하지만 여수는 인프라 및 지명도 등 지역 특성상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

사실이다. 여수공항 활주로 400m 연장, 크루즈항 부잔교 설치, 신·구항 연결도로 신설 미비 등에 따른 극심한 교통혼잡이 예상돼 성패 여부가 불확실하다. 외국인 유인을 위한 지명도가 낮다는 것도 고려의 대상이다. ‘불거리’와 숙박시설 확충 역시 성패의 관건이다.

따라서 정부 차원의 홍보와 예산 지원은 필수조건이다. 재외공관을 동원한 홍보와 인프라 구축 등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업이다. 여수박람회가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절호의 기회라는 점에서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다.

전남도, 여수시, 박람회조직위 등은 ‘불거리’와 숙박시설 확보, 시민들의 적극 참여 등 손잡이 준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이제 남은 1년,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만전을 기해야만 성공 개최를 기약할 수 있는 것이다.

無等鼓

파키스탄의 라호르(Lahore)박물관에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고행(苦行)하는 부처상'이 전시되어 있다. 수행자 시절에 대한 부처 자신의 회상을 근거로 만들어진 이 고행상은 말 그대로 '피골이 상절할' 심박한 모습을 하고 있다.

불교 경전의 증야아함경에는 부처의 수행자 시절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나는 배고프면 하루에 깨 한 알과 쌀 한 알씩을 먹었다. 몸은 쇠약해져 손으로 배를 만지면 등뼈가 잡혔고, 등뼈를 만지면 뱀가죽이 손에 닿았다. 가시나 쇠못이 박힌 날뻐지에도 눕지도 않고 물구나무를 서기도 했다. 사람들은 나에게 짐을 맡겨나 오 짐을 맡기고, 나뭇가지로 매리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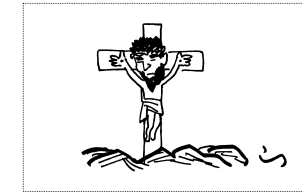
부처는 그러나 고행으로는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다. 대신, 한 여성으로부터 죽을 얻어먹고 기운을 차린 뒤 심신이 편안한 상태에서 보리수 아래 앉아 명상을 한 끝에 정각(正覺)을 얻었다.

고행은 의도적으로 몸을 괴롭히는 것을 뜻한다. 뼈와 살로 만들어진 인간의 육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설정하고, 그것을 돌파하는 일 자체를 수행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참가 어려운 고통 속에서, 잠들어 있던 정신이 차갑고 투명하게 깨어나는 것을 느낀다'는 것이란, 우리 일반인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경지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부처를 깨달음으로 이끈 것은 불교불라(不苦不樂)의 중도수행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부처도 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고행의 무익함을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다. 고행이 전혀 무익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경북 문경의 한 폐채석장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숨진 58세 남성의 죽음이 연일 화제다. 참혹하지만, '치열한 종교인으로서 예수의 죽음을 그대로 따르려 한 것'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는 듯하다. 엽기인 정신이 상을 한 끝에 정각(正覺)을 띠니, 그의 간절한 마음이 죽어서나마 보상을 받았기를 바란다. /홍행기 정경부처장redplane@

십자가 사망



은펜칼럼



이상욱

지난날 우체국장이면서 소설가였던 아버지는 저녁때는 꼭 반주를 찾았고 또 사소한 집안일이라도 거들게 되면 그 대가로 당연히 약주를 청할 정도로 애주가였다. 그래도 어머니는 짜증 한번 안내고 즐겁게 술을 내놓으셨다.

나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호기심에 이끌려 슬금슬금 한 모금씩 마셔봤는데 쓸쓸하면서도 달짝지근하다가 조금 있으면 어질어질해지는 것에 은근히 재미를 붙였던 것 같다. 우리 집은 손님이 오시면 으레 주안상이 차려져 나왔으며 내가 성년이 되었을 때는 주전자나 병에 남아있는 술은 다 내 차지가 되었다.

그 시절 친구의 누나가 역전에서 막걸리

예술포럼 술 끊은 사연

대리점을 하고 있었고 조금씩 술 맛을 알아가던 친구들이 오다가다 그곳에 들리곤 했는데 그 누나가 잠깐 자리를 비울 일이 있으면 우리에게 가게를 맡기기도 했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서로 마주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왜냐하면 당시 그 대리점에는 막걸리 열말이 넘쳐 들어가는 커다란 항아리 세 개가 팡바닥에 묻혀있었는데, 우리는 바가지로 두세 번 휘저은 다음 듬뿍 퍼서 벌컥벌컥 한 잔씩 들이켜고 단무지 한 조각 깨물어 먹으면서 자기 만큼 물을 부어 분량을 맞춰 놓았기 때문이다.

얼마 뒤 가게로 돌아온 누나가 "보나마나 한 잔씩 들었지?" 하며 우리를 훑어보아도 끝내 안마셨다고 능청을 떨었지만 사실 그 누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수법을 다 알고 있었다.

이렇게 술에 대한 기본 실력을 쌓아가다가 해군에 입대해서 신병 훈련을 받던 중 지나가다 기다리던 면회 날이 되었다. 큰 누님과 형님이 함께 오셨는데 형님이 사이

병마개를 따더니 통닭을 뜯고 있는 나에게 한 잔을 따라주시는 것이었다. 그런데 무심코 받아 마시던 나는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은 사이다가 아니고 소주였기 때문이다. 형님은 술을 좋아하는 나를 위해서 사이다병에 소주를 넣은 것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지만 그때 해군은 신병 훈련기간 중에는 당연히 금주, 금연을 해야 했다. 육군 출신 형님이라도 그 사실을 모를 리가 없다. 정말 센스가 있는 형님이었다. 그날은 나 혼자만 오랜만에 해롱해롱하며 신이 났다. 그 뒤 바다로 출동 나갈 때 가끔씩은 형님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실험해 옮기기도 했다. 그런데 나만큼 술을 즐겼던 어떤 동료가 항해 중에 그만 실수로 공업용 메탈알코올을 마셔서 실명할 뻔한 아찔한 사건도 있었다.

〈수필가〉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중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한 '은펜상'을 수여 합니다. 은펜칼럼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기고

녹색으로 행복하기



신광조

지난해 새마을운동분부는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면서 '녹색새마을운동'이라는 새 구호를 내놨다. 결집력을 바탕으로 아름답고 푸른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는 것이다. 새마을운동분부의 새로운 목표설정은 시대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행정에서도 녹색 교통, 녹색 공간, 녹색건축물, 녹색 도로, 녹색 스포츠, 녹색예술, 녹색산업 등 녹색이 끊어주는 정책이민 히트를 치고 관심을 모은다. 생활에서도 녹색아기집대, 초록유치원, 녹색 음식, 녹색 여자, 녹색 살림 등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태적 삶

을 바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녹색을 부르는 것일까?

첫 번째 이유는 인류가 살아온 삶에 대한 '철학적 자성'에서 비롯되는 것 같다. 무력대고 질주했던 세계화는 자원 쟁취와 시장 지상주의를 낳았으며 그 폐해가 점점 더해지고 있다. 이제 세상의 양심세력은 미래 지향적이고 인간적인 사회를 향한 새로운 목표와 비전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며 그 핵심으로 녹색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세상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됐다. 마땅히 다음 세대로 살 수 있는 세계를 보존하기 위해 어떤 용기와 문화가 필요한 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필리핀 환경운동가이자 사회사업가인 니카노르 페를라스가 말한 '혁명의 가슴은 곧 가슴의 혁명'인 이유다. 몇 년 전 광주를 방

문한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자 생물학자인 왕가리 마타이가 한 일은 자기 자신부터 나무 한 그루를 심는 일이었다. 모두 합쳐 3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고 그것으로 가난의 문제를 해결했으며 독재정권까지 무너뜨렸다.

환경 보호, 경제, 평화정책, 인권, 민주주의, 평등, 개발정책, 보건정책, 문화적 다양성, 교육, 건강한 공동체 등 지구가생성이라는 원칙의 '손'이 '베를의 북'을 이끄는 순간 백백이 짜인 인간사회라는 양탄자에 새로운 무늬가 생겨난다.

우리가 녹색에 매달려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세계 각국, 기업, 지방정부는 녹색을 '블루 이코노미'의 핵심이자 선도분야로 지목, 치열한 녹색 경주(Green Race)를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녹색기술육성, 친환경적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함으로써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삼고 있다.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의 '선순환 고리'가 이미 형성된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자기 것으로 가져가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가진 세계기업 GE가 Ecomagination(Eco+Imagination)을 전면에 내세워 세계시장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잘 알아야 할 것이다.

결국 세상은 '살기 좋은 땅'을 만들어내기 위한 경쟁의 판이다. 문화가 꽃 피고, 경제가 풍요롭고, 환경이 아름다운 곳, 지금 이 시점에서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길은 녹색으로의 힘찬 행진에 있다.

민주인권평화도시라는 도시이념에도 딱 어울리고, 부가가치창출에 항상 제약조건처럼 따라다니는 시장근접성의 문제에도 비교적 자유로운 분야다.

녹색생활 실천부터 시작될 '녹색창조도시 만들기'로 시민들이 정말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광주시 환경생태국장〉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고속도로 재테크, 하이패스로 알뜰하게

국제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미처 의식하지 못한 사이, 내 주변 곳곳에서 외국에서 비싸게 사들여온 기름이 새어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상시 이용자가 아닌 이상 자칫 방심하기 쉬운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시에도, 효율성과 경제성을 겸비한 통행료 지불시스템인 하이패스 이용을 권장한다.

하이패스란 단말기에 하이패스카드를 삽입 후 무선통신(적외선 또는 주파수)을 이

용하여 하이패스 차로로 30km/h 이하로 무정차 주행하면서 통행료를 지불하는 전자요금납입시스템이다.

직접적인 비용절감 차원에서 상시 5% 할인 및 출퇴근 구간에서 시간대와 차종에 따라 20~50%까지 통행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후불하이패스카드를 사용할 경우 카드사별 포인트 적립, 하이패스 단말기 지급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후불 하이패스카드는 효율성의 측면에서 보면, 고속도로 이용 시 매번 현금을 챙길 필

요가 없고 기존의 하이패스카드처럼 미리 충전을 체크하지 않아도 되며, 차량운행구간과 운행시간, 통행요금 등 차량운행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가장 및 기업소유 차량 관리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또 신용카드와 현금서비스의 기능이 없어 도난, 분실, 파손에도 안심할 수 있다.

비야흐로 재테크 시대다. 같은 돈을 받아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은행 잔고가 달라진다.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시 후불하이패스카드를 이용함으로써, 통행료 재테크와 효율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임수연·한국도로공사 옥곡영업소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李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업1간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인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이케팅국 222-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건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